

빅토리아 시대의 어린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으로

이 강 훈

차 례

- I. 서론
- II. 빅토리아 시대와 캐롤의 어린이
- III. 성인 작가 캐롤과 이상한 나라의 소녀
- IV. 앨리스와 빅토리아 시대의 어린이
- V. 아동문학의 특성과 사회적 접근방식의 과제

I. 서론

어느 문학작품이든 그 작품을 가능케 한 특정 시대의 사회, 문화적 문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른 예술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문학 역시 특정 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작가의 반응이고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작품과 당대의 시대상은 서로 보완적 관계를 맺게 되며 작품을 통해서 특정 시대의 역사, 문화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당대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작품의 심도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는 아동문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아동문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품 외적인 요소들, 특히 시대 상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특정 문화나 이데올로기 같은 외적 요소들이 작품의 평가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이는 아마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인식 범위와 깊이가 부족한 어린이의 삶을 묘사한다는 점, 그리고 작가가 성인의 시각에서 기존 사회의 시각과 가치를 어린이에게 일방적으로 투사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어린이

와 아동문학의 개념을 구성하는 특정 사회의 고정된 시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어린이에 대한 특정 시대나 사회 또는 작가 개인의 문화적 편견이 은연 중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문학 역시 시대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아동문학을 통해 특정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아동문학을 통한 접근은 어린이의 세계라는 주변 문화에 대한 성인과 기존 사회의 일방적인 시각과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당대 사회의 편협함과 독단 등에 대한 비판적 논의까지 가능케 해 준다. 따라서 아동문학에서 작품과 시대 상황의 문제는 일반적인 리얼리즘 소설의 경우에 비해 간접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성인 작가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아동문학 장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대적 배경과 작품의 관계 또한 당대 어린이에 대한 작가의 시각, 작가의 개인적 성향, 어린이에 대한 개념의 변화 등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본 논문은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를 중심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아동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아동문학의 사회, 문화적 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빅토리아 시대의 아동문학에서 캐롤이 가지는 위상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어린이에 대한 캐롤 자신의 독특한 시각과 취향, 그리고 그의 작품에 나타난 빅토리아 시대의 어린이의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아동문학과 시대연구 또는 사회적 접근 방식의 문제와 한계 등도 간략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빅토리아 시대와 캐롤의 어린이

서양에서 어린이와 책의 관계는 사실상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에 이미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행실을 가르치기 위한 “예절 책들”(courtesy books)이 있었고(타운젠드 14) 이후에도 쉬운 설교 내용이나 철자법 학습을 위한 어린이용 책들이 간간히 출판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도덕이나 교훈, 학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어린이들의 욕구나 재미와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진정한 아동문학은 어린이 책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교훈적인 것에서 벗어나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아동문학이 급격히 발달하게 된 데에는 문맹률의 감소, 경제적 변형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낭만주의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듯하다. 산업화와 중산층의 증가,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노동에서 벗어나 애정과 관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분명 19세기에 등장한 어린이에 대한 시각의 급격한 변화였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가 문학작품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근대적인 아동문학이 태동하게 된 것에는 어린이를 순수성의 상징으로 보고 가정, 여성, 모성에 등 소외되어 왔던 계층에 관심을 가졌던 낭만주의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낭만주의의 이국취미와 특이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린이의 순수한 호기심,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어졌고 민담이나 전설과 결합하면서 환상성이라는 아동문학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루이스 캐롤의 『앨리스』 연작 역시 어린이에 대한 당대의 낭만주의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캐롤은 “앨리스를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부활절 인사”(An Easter Greetings to Every Child who loves Alice)라는 글에서 성경, 블레이크(Blake), 워즈워스(Wordsworth)에 대한 비유를 통해 어린이의 순수성을 찬양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잃어버린 동심, 성인세계의 삶의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Cohen 403). 실제로 캐롤은 평소 블레이크, 워즈워스, 콜리지, 디킨스, 테니슨 등 낭만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읽었는데 이들은 모두 어린이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작가들이었다. 특히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캐롤의 애정은 당시 낭만주의적인 감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평소 그의 시나 작품 속에는 어린이와 어머니의 모습이 감상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어린 아기와 죽은 어머니의 모습, 즉 어린 아기의 순수성과 모성의 숭고함을 다룬 경우가 많았다(Cohen 321-323).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캐롤은 여자 어린이에게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그의 관심은 그가 생각한 삶의 중요한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실비와 브루노』(*Sylvie and Bruno*)의 여주인공 실비(Sylvie)

를 “어린 시절, 모성, 사랑이 결합된 보호자”로 묘사한 사실(Cohen 322)은 어린이에 대한 캐롤의 관심이 개인적 취향을 넘어 제국주의와 초기 자본주의, 과학과 종교의 갈등 등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사회 분위기에서 어떤 불변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린이의 순수함에서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캐롤과 낭만주의의 유사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캐롤이 아동문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단순히 어린이 주인공의 유무, 어린이를 통한 당대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낭만주의라는 문화적 특성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어린이를 묘사하는 다른 작가들의 경우와 확연히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등장하는 작품에서도 어린이는 기존의 성인사회의 도덕과 가치를 반영하고 습득,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당대의 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작가가 어린이에게 당대의 도덕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 속에는 원인이자 출발점으로서의 어린 시기 그리고 교훈의 결과로서의 성인 시기가 모두 묘사되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성장은 주인공 어린이 뿐 아니라 작품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어린이와 성인간의 연속성과 도덕적 주제는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의 『사일러스 마이너』(*Silas Marner*)나 “성인 속의 어린이” 또는 “성인의 아버지로서의 어린이”라는 주제로 워즈워스의 여러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 있을 정도로 당대 작가들의 대표적인 특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린이는 결국 성인의 도덕적 성취를 위한 수단 또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최종적인 관심은 결국 성인이었다. 유난히 어린이를 많이 등장시켰던 디킨스(Dickens)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디킨스에게도 어린이는 블레이크의 경우처럼 주로 순수함과 함께 급격한 산업화의 희생자라는 사회적 상징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블레이크의 어린이와 달리 디킨스의 어린이는 성인들의 사회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습과 규칙을 배워나가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발전해 나간다. 비교적 어린이를 적극적인 삶의 주체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남자 어린이의 경우와 달리 여자 어린이는 특별한 발전이 없이 순수함만을 유지하거나 남자 주인공의 심리적 위안의 대상으로 남는 경우

가 많다.¹⁾ 반면 캐롤은 여자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했을 뿐 아니라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캐롤 작품의 초기 비평가들 중 한 사람인 엠프슨(William Empson)이 단언하듯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분명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다(Empson 253). 전통적인 동화에서 여주인공이 왕자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의 어려움도 모험도, 성장도 없이 정체되어 버리는 것과 달리 캐롤의 여주인공 앨리스는 모험이 끝난 후 확신, 자신감, 인식, 수용능력을 얻는다(Cohen 139).

낭만주의자들은 어린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품의 주요 인물로 설정했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린이를 기성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고 최종적으로 작가의 지향점이 어린이가 아닌 성인에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 빅토리아 시대와 어린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캐롤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어린이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어린이를 둘러싼 특정 시대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나아가 낭만주의자들의 한계까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롤은 성인의 시각에서 어린이를 바라본 낭만주의자들과 달리 자신이 스스로 어린이의 세계로 되돌아갔고 어린이와 융합하여 어린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다. 게다가 어린이를 성인의 일부, 또는 성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또 다른 인격으로 보았다. 즉 어린이의 의식세계를 독자적인 인식체계로 인정했던 것이다. 캐롤이 스스로 어린이가 되었다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어린이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고 어린이를 둘러싼 성인사회가 아니라 어린이 그 자체를 묘사함으로써 어느 작가보다도 당시의 어린이를 정확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캐롤은 자신이 어린이로 되돌아감으로써 당대의 사회가 허용하지 않았던 요소, 욕망 등에 따른 개인적인 심리적 억압을 어린 시절로의 되돌아감과 도피를 통해 해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서시에 등장하는 “어느 맑은

1) 사실 아동문학에서 여자 어린이에 대한 성차별적 시각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동화에는 여자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두려움, 해악이 가득하며 여주인공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며 복종적인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용감한 왕자를 위한 보상으로 묘사되고 있다(Zipes 69).

여름날”은 삶의 퇴락과 일상의 어려움에서 도피하려는 캐롤의 욕망의 상징이며 결국 『앨리스』 연작은 어린이의 순수성이라는 낭만주의적 시각과 캐롤 자신의 도피주의 성향이 결합된 결과인 것이다(Coveney 329-330). 그런데 캐롤의 이러한 개인적 성향은 『앨리스』 연작의 소재나 주제, 이미지 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동정적이며 순수함을 추구하는 한 개인에게 당대의 사회가 부과한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부담과 문제점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어린이의 세계를 탐구했고 스스로 어린이가 되었고 또 되어야 했던 만큼 그의 작품에 드러난 어린이의 모습, 빅토리아 시대의 어린이의 문화가 어느 작가의 작품보다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Ⅲ. 성인 작가 캐롤과 이상한 나라의 소녀

아동문학은 대체로 주변문학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실 일반적인 주변문학과 비교해서도 또 다른 특징이 있다. 흔히 말하는 주변문학, 즉 소수민족의 문학, 여성문학, 동성애를 다루는 퀴어문학 등은 최소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시각과 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려는 의지와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아동문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성인 작가가 어린이를 위해 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시각과 감성에 맞추어, 또는 그것을 고려해서 성인 작가가 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성인 작가의 어린이에 대한 왜곡된 또는 주관적인 시각이 작용하기 마련이며(Ottinen 4) 나아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나 작가가 상정한 독자의 이미지 또한 영향을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나 독자는 작가의 과거 이미지이거나 작가의 과거 만들기 과정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²⁾ 따라서 아동문학 연구에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작가의 전기

2) 오베르스타인(Lesnik-Oberstein)은 더 나아가 어린 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인의 문화적 창작물이며 어린 시절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삶의 초기 단계를 이해하는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198).

적 사항이나 개인적 특이성이다. 그리고 이는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다른 어떤 아동문학작품들 보다도 작가의 개인적인 성향과 경험, 취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나아가 이 과정에서 당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사회상까지도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루이스 캐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였다. 그는 당시 크라이스트 처치 단과대학의 학장이었던 헨리 리들(Henry Riddle)의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이후 여러 번 아이들과 보트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 중 1862년 7월 4일, 세 명의 리들 자매와의 보트 여행에서 아이들에게 기존의 동요나 동시를 즉석에서 패러디하고 지어내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며, 이후 이 이야기를 편집하여 책으로 출판하게 된다. 이 책이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으며 이후 교훈주의의 딱딱한 아동문학에 싫증을 느낀 수많은 어린이 독자들의 큰 인기를 얻으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아동문학서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인기와는 별개로 아동문학에서 매우 독특한 평가를 받고 있는 매우 특이한 작품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그 속편인 『거울나라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는 교훈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아동문학의 현대적 성향을 최초로 보여준 작품이다. 물론 당시에도 교훈주의를 배격하는 동화나 아동문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캐롤의 작품만큼 관습이나 특정한 주제의 부담에서 벗어나 환상과 즐거움을 직접 추구한 경우는 드물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특유의 말장난과 논리에 있다. 대부분의 아동문학에서는 내용이나 주제가 가장 중시된다. 그러나 캐롤의 작품에는 명확한 주제나 플롯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무질서한 에피소드들과 인물들의 괴상한 형식논리, 말장난 등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아동문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언어와 논리 문제를 직접적인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캐롤의 말장난과 형식 논리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당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출판되었을 때 대체로 호의적인 평이 많았으나 『어세네움』(*Athenaeum*)이라는 잡지는 “어린이들은 아마도 이 과장된 이야기를 매혹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당황스럽다고 느낄 것”이라고 평한 바 있으며

(Cohen 131), 유명한 작가인 캐서린 앤 포터(Katherine Ann Porter) 역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읽는 것이 매우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회상한다(Rackin 107-108). 괴상한 논리와 말장난이 현실의 안정감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캐롤 작품의 이러한 특이성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직업적인 아동 문학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는 원래 보트 여행 중 즉석에서 지어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출판을 염두에 두고 잘 짜여진 플롯을 가진 형태로 구성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거울나라의 엘리스』는 학장의 딸인 엘리스 리틀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상황에서 쓴 작품으로서 처음부터 출판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작품이었다. 이 책은 플롯이 없는 전작에 비해 체스 게임이라는 중심 구조가 존재하며 엘리스가 여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또한 그가 작가로서 어린이들의 도덕과 교훈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집필한 『실비와 브루노』는 익명의 독자가 자신은 “엘리스 만큼 실비를 좋아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의 유감의 편지를 보냈을 정도였다(Collingwood 288). 실제로도 이 작품은 그의 실패작이라 불릴 정도로 무미건조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캐롤은 오히려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없이 형식 논리, 말장난, 패러디 등 자신의 평소 기질과 재능, 취향을 부담 없이 펼칠 때 더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캐롤 자신의 시각과 취향이 직접 작품에 적용되었을 때 그의 재능이 가장 잘 드러났던 것이다. 캐롤의 작품은 작가로서의 의식, 문학적 장치나 관습보다는 개인적 성향, 경험, 기질을 작품 화시켰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는 논리에 대한 관심, 특이한 장치, 말장난 등 그의 개인적 취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평소 그가 추구한 어린이의 이상적인 모습도 드러나 있다. 단순히 착하고 귀여운 모습이 아니라 호기심과 놀라움에 가득 차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의 엘리스가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관심거리와 취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괴상한 논리와 말장난으로 구체화되며 이에 대해 어린이가 느끼는 놀라움과 당혹감, 이것이 캐롤이 자신의 작품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독특한 어린이 사랑의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상한 나

라의 앨리스』의 가치는 결코 캐롤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나 시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캐롤은 빅토리아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평소 말없고 무뚝뚝한 옥스퍼드 출신이자 도덕심 충만한 성직자, 이성적인 수학자이며 보수적이고 형식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당시는 급격한 산업화와 식민주의 시대로서 청일전쟁, 보어전쟁 등 여러 국제적 문제 외에도 국내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터져 나오던 시기였으며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 또한 매우 거세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캐롤은 사회개혁 등의 문제에 전적으로 무관심했고 철저히 보수적인 정치관을 유지했으며 따라서 계급의식도 매우 강했다. 당시 중산층의 계급의식과 보수주의는 상당히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캐롤이 자주 방문했던 리들 집안 역시 계급의식에 젖어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캐롤이 옥스퍼드의 교수였지만 학장이었던 헨리 리들과 그의 부인은 캐롤을 자신들과 동등한 계층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중산층의 이러한 계급의식은 캐롤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주인공이자 리들 학장의 딸인 앨리스 리들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캐롤은 리들 학장의 아이들과 매우 친하게 지냈고 그 중 둘째 딸인 앨리스 플레잔스 리들의 요청에 따라 보트 여행에서 해 주었던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앨리스 외에도 캐롤은 어린 소녀들에 대해 평소 상당한 호감과 애착을 보였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캐롤이 앨리스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앨리스에게 청혼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한 경우가 많았다. 캐롤의 소아성애증 여부는 더 이상 제기되고 있지 않으나 그와 앨리스 사이에 어떤 큰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캐롤은 평생 거의 하루도 빠지 않고 일기를 썼는데 리들 집안과의 갑작스러운 결별과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 시기의 일기(1863년 6월 27, 28, 29일의 일기)가 그의 조카에 의해 의도적으로 폐기되었고 교내에 당시 31세였던 캐롤이 11세였던 앨리스에게 청혼을 했으리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을 고려해 보면 비평가들의 추측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듯하다. 당시에는 나이 많은 남성과 10대 소녀의 결혼이 실제로 가능했으며 여성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는 12세였다. 따라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으나 리들 부인은 자녀들이 왕족과 결혼하기를 원했으며 캐롤이 자신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Cohen 514, 522).³⁾

캐롤은 평소 체스, 크로켓, 백가문, 당구 등을 즐겼고 오페라나 연극도 매우 좋아했다. 실제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영터리 크로켓 경기가 등장하며 『거울나라의 앨리스』는 그가 리들 자매에게 체스를 가르쳐 주었던 일을 근거로 한 것이다. 또한 그의 서재에는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재미있는 장난감들이 가득했으며 산책을 나갈 때에는 어린이를 만날 것을 대비해 주머니에 흥미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다니곤 했다. 그가 좋아한 장난감들은 대체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결합된 장치들이었는데 이는 당대의 과학발전과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그의 평소의 관심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캐롤 생전에 전화, 녹음기, 영화 등이 발명되었으며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사진기였다. 평소 소심하고 비사교적이었던 캐롤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며 친교를 형성했는데, 물론 그의 주된 관심 대상은 어린 소녀들, 특히 소녀의 나체였다. 그의 소녀 취향과 나체에 대한 관심은 당대에도 오해의 여지가 있었고 캐롤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1880년에 헨더슨 부인에게 자녀의 사진 촬영을 요청하면서 보낸 편지에서 그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무의식이 매우 아름답고, 신성한 것이 앞에 있을 때처럼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쓰고 있다(Cohen 166). 나체 촬영에 대한 오해를 피하고 의도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캐롤은 옷을 일종의 사회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보았으며 외부로부터 주어진 인위적인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연적이고 순수한 모습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린 소녀의 순수성에 대한 집착은 캐롤만이 아니었다. 당시의 낭만주의자들은 자연에서 인간 정신의 순수성을 찾았고 어린 소녀나 순결한 여성에게서 소박한 일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했다. 캐롤이 어린 소녀의 나체를 촬영하고자 한 것은 결국 소녀의 나체가 암시하는 순수성의 이미지를 고정, 영속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캐롤의 작품에는 캐롤 자신을 연상시키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한다. 『거울나라의 앨리스』의 백기사(White Knight)가 대표적인 예이다. 백기사는 캐롤의 앨리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어느 인물보다도 앨리스에게 친절하며 캐롤의 평소 모습과도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미있는 장치들을 좋아하

3) 앨리스는 이후 하그리브스(Hargreaves)라는 부유한 지주의 아들과 결혼했다. 캐롤은 자신이 고수한 보수적인 계급의식의 희생자가 되었던 것이다.

고 기발한 방식으로 발명을 하는 모습, 예를 들어 압지(blotting paper)에 화약과 밀봉 왁스를 섞어 푸딩을 발명하는 모습은(Carroll 186) 평소 괴상한 논리에 근거한 말장난, 사실과 허구의 혼합, 엉터리 어원론에 근거해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캐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특히 백기사는 앨리스가 여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의 늑어감을 한탄하며 앨리스와의 헤어짐에 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어린이들과의 순수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슬퍼하는 캐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이렇듯 캐롤은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직접 작품에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과도한 노출이나 간섭을 배제하는 현대문학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경우이며 아동문학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나 최소한 캐롤의 이러한 방식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독특한 매력의 핵심적 요소인 것은 분명해 보이며 따라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분석과 평가에서도 가장 중시되어야 할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IV. 앨리스와 빅토리아 시대의 어린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타난 주인공 앨리스의 모습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의 하나는 매우 예의바르고 착해 보인다는 것이다. 무뚝뚝하고 까다로우며 적대적이기까지 한 등장인물들에게 앨리스는 항상 예의바르게 행동하려 노력한다.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고 먹어도 되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주인공 앨리스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묘사는 어린이의 순수성을 사랑했던 캐롤의 마음 씩씩이를 반영하는 듯하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캐롤이 주인공 앨리스를 착하고 사랑스럽게 그리려는 의도가 부족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행복해하는 만족스러운 인물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캐롤은 행복에 겨운 어린이가 아니라 호기심 많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 당혹해 하는 어린

이의 모습을 그려내려 했는데 실제로 캐롤은 평소 일반적인 방식을 거꾸로 뒤집은 형태의 놀이들을 많이 고안했던 바 있다(Gadner 142).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하면서도 이를 재미있게 생각하는 어린이, 이것이 캐롤이 보고 싶어 했던 어린이의 모습이었고 그가 어린이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엘리스의 언행에는 당시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의 전형적인 시각, 감성,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엘리스의 예의바른 태도는 사실상 당시 중산층의 예절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며 하층민에 대한 편견 등 계급의 식마저도 드러난다. 결국 엘리스는 백지와 같은 순백의 소녀가 아니라 당대의 문화 이데올로기에 물든 그 시기의 전형적인 어린이인 것이다. 아동문학이 상대적으로 사회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드물고 캐롤의 작품이 언어와 논리를 중심으로 한 난센스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쓰여진 시대의 문화적 특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가정은 매우 엄격한 분위기였으며 어린이에게 부모나 성인은 규율과 처벌을 가하는 두려운 존재인 경우가 많았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언제나 화를 내고 명령을 내리며 목을 자르라고 소리치는 하트의 여왕은 바로 당시의 엄격한 가정과 부모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물론 리들 부인이 자녀에게 엄격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시의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어린이를 보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엘리스의 보모였던 프리켓(Prickett) 양은 매우 잔소리가 심한 여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이런 엄격한 분위기에서 어린이에게 잘못과 꾸짖음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엘리스 또한 당시의 어린이들처럼 스스로 꾸짖고 처벌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도입부에서 키가 작아져 테이블에 손이 닿지 않아 울고 있다가 엘리스는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울고 있어야 소용없어!”라고 소리치면서 “당장 그만둬!”라고 충고를 한다(Carroll 12). 게다가 화자는 엘리스가 가끔 자신을 너무 심하게 꾸짖어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알려준다. 꾸짖고 위협하는 장면은 『거울나라의 엘리스』에서도 등장한다. 엘리스는 고양이 키티를 꾸짖으며 벌을 주겠다고 위협하는데 이 장면에서 엘리스는 7세 반의 어린 소녀가 아니라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해 대던 보모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폭력과 위협, 충고와 처벌 등은 당대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경험이었으며 이

는 중, 상류층의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러한 어린이들의 현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구체화된다. 사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등장인물들 대다수가 앨리스에게 적대적이고 무례하다. 예를 들어, 애벌레는 처음 본 앨리스에게 대뜸 “누구나 너는?”이라고 말한다. 이런 표현은 물론 “대화를 시작하기에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다”(Carroll 35). 이후에도 애벌레는 계속 명령조로 통명스럽게 말한다. 당시의 성인들에게 어린이는 전혀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영터리 차모임 에피소드에서도 모자 장수는 앨리스에게 “너 머리를 잘라야겠다”라고 말하며 앨리스는 이에 “사적인 말”을 하지 말라면서 무례하다고 되받아친다 (Carroll 55). 당시 어린이라 하더라도 여자의 머리카락 길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었다. 그런데 당대의 부정적인 측면이 등장인물들에게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있지만 주인공 앨리스 역시 당시의 문화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적 자만심과 계급의식이 대표적이다.

앨리스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항상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뽐내고 싶어 한다. 토끼굴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가 4000 마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서도 경도, 위도 같은 말이 대단한 말처럼 들린다는 이유로 사용해 보고 싶어 한다. 앨리스의 지적 허영심은 “반감”(antipathies)과 “대척점”(antipodes)을 혼동하는 장면에서(Carroll 8) 극에 이르는데 괄호 속에 드러난 화자의 말(“앨리스는 듣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전혀 그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은 앨리스의 허영심을 희극적으로 비꼬고 있다. 과자를 먹고 신체 크기가 변한 후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장면에서도 앨리스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메이블(Mabel)이라는 소녀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계속 확인한다. 눈물의 웅덩이 에피소드에서는 시대착오라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정복왕 윌리엄의 이야기를 알고 있음을 자랑하며 불어를 배운 것을 뽐내기도 한다. 또한 법정 장면에서는 배심원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워 여러 번 반복해서 읊조려보기도 한다.

리들 집안은 귀족은 아니었지만 왕족 등 상류층과의 교류도 많았고 캐롤의

사회적 지위를 무시할 정도로 계급의식도 강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앨리스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동물이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뒤집어진 계층 체계이다. 흰토끼의 집에서 흰토끼가 앨리스를 메어리 앤(Mary Ann)이라 부르며 잃어버린 장갑과 부채를 가져오라고 하자 앨리스는 “나를 하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라고 중얼거린다. 메어리 앤은 당시 하녀의 대표적인 이름이었고 앨리스는 자신을 하녀 취급하는 흰토끼의 태도에 크게 놀라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그가 얼마나 놀랄까!”라고 말한다(Carroll 27). 여기에서 “내가 누군지”는 앨리스의 이름이나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앨리스의 사회적 지위, 즉 계급을 의미한다. 자신이 결코 하녀가 아니며 상당한 위상을 가진 집안 출신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끼의 심부름을 하다니, 정말 이상해”라는 앨리스의 반응은 인간과 동물의 계층 체계의 혼란을 의미하지만 부분적으로 앨리스의 계급의식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가짜 거북 에피소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앨리스는 “지금까지 결코 이렇게 명령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앨리스는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항상 예의바르고 정중한 표현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과는 달리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짜 거북이 학창시절을 회상하면서 과외 수업 이야기를 꺼내자 앨리스는 자신도 과외로 불어와 음악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탁도 배웠느냐는 가짜 거북의 말에 앨리스는 화를 내면서 그런 것은 절대 배운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앨리스가 화를 내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과외 수업에 대한 앨리스의 반응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가짜 거북이 학교에서 세탁을 배웠다는 것은 가짜 거북이 일종의 직업학교를 다녔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불어나 음악 같은 고상한 교육을 받는 부유한 중산층 소녀에게 세탁하는 법을 배웠느냐는 질문은 매우 무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네가 다닌 학교는 좋은 학교가 아니었네”(Carroll 76)라는 가짜 거북의 말은 물론 앨리스의 계급의식에 대한 풍자이다.

앨리스는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대표하며 이는 앨리스의 이성, 예의범절, 계급의식, 신체변화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나타난다. 모험을 즐

기는 다른 아동문학의 주인공들과 달리 앨리스는 항상 집과 친숙한 세계를 그리워한다. 앨리스가 처한 이상한 세계 역시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세계는 앨리스가 속한 긍정적인 빅토리아 시대와 달리, 감추고 싶은 당대의 어두운 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혼란, 인간과 동물의 위상이 뒤바뀐 전도된 사회, 언어와 논리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세계이며, 신체의 크기가 제멋대로 변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혼란함 그 자체이다.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등장인물들은 현실의 규칙, 논리, 질서를 부정하면서 자신만의 독단적 시각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반면 앨리스는 이 혼란스럽고 이상한 세계를 이성과 질서, 예의와 조화를 통해 바로 잡으려 한다. 따라서 인물들과 앨리스의 갈등은 어떤 의미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상류층과 하류층의 갈등, 성인의 시각과 어린이의 의식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앨리스는 언니나 보모에게서 배운 대로 행동하면서 등장인물들에게 당대 중산층의 보수적인 시각을 강조, 강요하는 인물인 것이다. 결국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아름다운 환상세계를 중심으로 한 아동문학작품들과 달리 언어와 논리라는 특이한 소재를 다룬 매우 독특한 작품일 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당대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드러내는 작품이기도 하다. 어린 소녀의 사소한 언행과 시각에 당대 중산층의 지배적인 시각과 감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장난과 대화 속에 계층 간의 갈등과 모순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V. 아동문학의 특성과 사회적 접근방식의 과제

아동문학은 특성상 당대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캐롤의 작품은 현실적인 인물이나 에피소드의 사회적 맥락보다는 언어유희와 논리, 어린이의 의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사회, 문화적 접근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작가의 개인적 성향, 작품 속에 스며있는 사소한 이미지들은 분명 어린이를 둘러싼 당대의 사회적 편견과 특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

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예를 통해서 케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어린이 문화에 대한 사회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문학의 사회적 접근은 여전히 그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결론을 대신하여 남아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동화나 아동문학에서 사회적 맥락을 밝혀내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앞에서 밝혔듯이 그것은 일반적인 성인용의 리얼리즘 소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문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며 드러난다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간접적이기 때문이다. 아동문학이 주로 어린이들의 제한된 시각과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동문학의 단점이자 한계인가 아니면 예외적인 장르상의 특징인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어린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말장난과 난센스, 패러디 등으로 이루어진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사회적인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개인적 특이성, 인물의 언행과 반응 등을 통해 당대의 문화적 상황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지식이 작품의 이해를 풍요롭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어린이들의 독서의 즐거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며, 그러한 연결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듯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사실상 작품을 즐기는데 있어서 사회적 문맥이 그리 중요한 작품은 아니지만, 양자 간의 긍정적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된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어린이들의 인기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도 부족하다. 사실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책에서 재미있고 환상적인 이미지와 묘사만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가장 큰 특징인 언어와 논리의 특이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런 문제에 흥미를 보이는 것은 성인들이다.

아동문학이 시대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대체로 성인소설이 순화된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는 아동문학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8세기 영국의 정치상황, 국제관계, 인간의 어리석음 등을 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성인용 작품이다. 그런데 아동문학 형태로 축약되고 순화된 경우에도 사회적 문맥이 어린이의 독서 경험의 즐거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역시 당대의 미국 사회를 풍자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다채로운 모험이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어서 역시 인기 있는 아동문학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사실상 미국에서는 풍자적인 요소와 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묘사 때문에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작품 속에 드러난 부정적 사회상황이 어린이 독자의 독서 경험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사실상 이러한 작품들에서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요소는 편집과 순화 과정에서 제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다시 사회적 문맥이나 시대상황이 아동문학의 필수요소 또는 바람직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성인용 작품을 아동문학으로 다시 쓴 경우는 대체로 교훈이나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작품이 원래 아동문학이 아니었다는 문제, 즉 아동문학의 정의와 범위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게다가 편집과 다시 쓰기 과정에서 성인의 일방적인 시각이 강조되고 당대의 문화적 풍토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게다가 교훈주의로의 회귀라는 부담도 있을 수 있다. 교훈주의나 교육적 기능이라는 시각 역시 성인들의 기성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아동문학의 주체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동문학이 아동에 대해 또는 아동을 위해 성인이 쓴 것인가 아니면 아동들 자신의 시각과 감성을 담은 아동들이 쓴 작품인가 라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결국 아동문학의 주체가 성인인가 어린이인가라는 정체성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아동문학의 제작, 출판, 비평이 독자적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아동문학과 사회적 맥락의 문제는 아동문학의 정의, 교훈주의와 즐거움의 문제 등 해묵은 난제를 또 다시 제기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아동문학 연구의 핵심이자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본 논문은 캐롤의 동화를 중심으로 아동문학과 특정 시대의 사회, 문화적 연관성 나아가 아동문학의 사회적 접근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린이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시각과 취향, 작품에 나타난 당대의 사회상을 구체적 접근 방식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캐롤의 동화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말장난과 논리를 중심으로 한 언어학적 시각에 치우쳐 있어 사회, 문화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이러한 시도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리얼리즘 문학에 비해 아동문학이 가진 태생적,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아동문학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인 용 문 헌

- 타운젠드, 존 로. 『이야기책의 역사』. 강무홍 옮김. 서울: 시공주니어, 1999.
- Carroll, Lewis. *Alice in Wonderland*. Ed. Donald J. Gray. London: Norton, 1982.
- Cohen, Morton. *Lewis Carroll: A Biography*. New York: Alfred A. Knopf, 1995.
- Collingwood, Stuart. *The Life and Letters of Lewis Carroll*. London: Kessinger Publishing, 2004.
- Coveney, Peter. "Escape." *Alice in Wonderland*. Ed. Donald J. Gray. London: Norton, 1992.
- Empson, William. "The Child as Swain." *Some Versions of Pastoral*. New York: New Directions Books, 1974.
- Gardner, Martin. Introduction and Notes. *The Annotated Alic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0.
- Ottinen, Ritta. *Translating for Children*. New York: Garland Publishing, 2000.
- Rackin, Donald.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and Through the Looking-glass: Nonsense, Sense and Meaning*. New York: Twayne, 1991.
- Zipes, Jack. "Don't Bet on the Prince: Feminist Fairy Tales and the Feminist Critique in America." *Opening Text: Psychoanalysis and the Culture of the Child*. Ed. Joseph H. Smith and William Kerriga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85.

Abstract

Children in the Victorian Age in Lewis Carroll's *Alice in Wonderland*

Lee, Kang-hoon

Literary work has close relation with its time and culture and children's literature is no exception. However, Children's literature is often considered trivial for several reasons: it describes children who have limited views and functions in the society and it is written by an adult who writes mainly for the educational purpose without much emphasis on social context between children and society. But it is this biased view on children's literature that reveals social, cultural importance of children's literature. Therefore, when the adult author's attitude toward children is closely examine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rejudices of the time is clearly recognized. This is what can be expected from the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literature and society.

This journal examines Lewis Carroll's personal view and attitude toward children and how those of the Victorians were reflected in his work, *Alice in Wonderland*. This research, through the examination, tries to show how socio-cultural study can be possible in children's literature, with some remarks on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the cultural study of children's literature.

Key Words: children's literature, culture, Victorian age, Carroll, Children
아동문학, 문화, 빅토리아시대, 캐롤, 어린이

논문접수일: 2014.05.07

심사완료일: 2014.06.16

게재확정일: 2014.06.21

이름: 이 강 훈

소속: 서원대학교

주소: 131-812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86길 9-14 미소지움2차 201-106호

이메일: leekh@seowon.ac.kr

